

쉽게 씨워진詩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六疊房은남의나라、

詩人이란 슬픈天命인줄알면서도
한줄詩를 적어볼까、

맘내와 사랑내 포그니 품긴
보내주신 學費封套를받아

大學노一트를 끼고
늙은敎授의 講義 들으려간다。

생각해보면 어린때동무를
하나、둘、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홀로 沈澱하는것일까?

人生은 살기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씨워지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六疊房은 남의나라。
窓밖에 밤비가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잡는 最初의 握手。

一九四二、六、三、

쉽게 씨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맘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一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1942.6.3.